

TV, LED 선전에도 성장 “스톱”

경제위기로 구매심리 위축 ... 평면TV 9% 신장에 플라스마는 감소

2011년 TV 시장이 2010년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며 성장이 멈출 것으로 전망됐다.

디스플레이서치는 2011년 세계 TV 시장이 LCD(Liquid Crystal Display) TV 2억600만대, 플라스마 TV 1700만대 등으로 2010년과 같은 2억4800만대에 머물 것이라고 10월20일 발표했다.

디스플레이서치는 “북미와 유럽에서는 지속적인 경제 위기로 소비자들의 구매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며 “반면, 신흥국 시장은 성장을 계속하며 선진국 시장과 선명한 대조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전체 TV 시장은 정체상태이지만, 브라운관과 프로젝션 TV를 제외한 평면 TV 시장은 2010년에 비해 약 6% 성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흥국 시장에서 브라운관 TV 대체율이 증가하면서 평면 TV 시장 성장률이 2012년에는 9%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프리미엄 시장에서는 LED(Light Emitting Diode)와 3D TV가 안정적 성장을 이어갈 전망이다.

디스플레이서치는 “LED와 3D TV가 프리미엄 시장에서 위치를 강화하며, 전체적인 LCD TV의 평균 판매 가격을 지지하는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며 “그럼에도 전체 LCD TV 수익은 2010년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지적했다.

플라스마 TV는 LCD TV 가격 하락이 본격화됨에 따라 생산 둔화가 본격화돼 2012년 중반까지 분기마다 10%대 생산 감소율이 이어갈 것으로 예측됐다.

디스플레이서치는 이와 함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TV가 2012년 후반 40인치급 이상에서 첫선을 보일 것지만 높은 가격과 생산능력 한계 때문에 2015년에도 40인치 이상 TV 시장의 2.5%를 차지하는데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3D TV는 북미시장의 11%, 서유럽의 14%, 중국의 12%를 차지해 2011년 총 2200만대까지 확대되고, 2015년에는 1억대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10/21>